

# 조사단 끈질긴 노력에 현충원서 아버지 유해 찾아

## 71년 만에 돌아온 6·25 전사 영웅

군 기록엔 '전역' 가족 '전사했다' 생각  
매화장보고서 뒤져 현충원 안장 찾아  
장남 김동수 씨도 베트남전 파병용사  
화랑무공훈장 받으며 뜨거운 눈물

25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추석을 나흘 앞둔 현충원에는 평일이지만 적지 않은 추모객이 오가고 있었다. 다음 날 예정된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한몫했을까? 현충원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모습이었다.

이날 현충원 22묘역 335번 비석 앞에서는 잊혀졌던 영웅을 기리는 행사가 거행됐다. '전역'과 '전사'의 갈림길에서 71년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했던 고(故) 김경용 이등중사가 주인공이다.

육군인사사령부 6·25무공훈장찾아주기 조사단(조사단)이 마련한 소박한 행사에서 김 이등중사의 장남 김동수(78) 씨를 만나 볼 수 있었다. 여든을 눈앞에 둔 흰머리의 노인인 아버지의 묘 앞에서 마치 철부지 아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사실 어제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울산에 사는 동생과 함께 현충원을 먼저 방문했어요. 동생도 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곧바로 서울로 왔습니다.”

신기진(대령) 조사단장은 “김 이등중사의 행적이 다른 참전용사분들보다 복잡했다. 하지만 단원 모두가 힘을 합쳐 오늘 이 자리에 영웅을 모실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신 단장의 말처럼 김 이등중사를 찾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7월 그의 행적을 찾아 나선 조사단은 본적이 울산이라는 것을 알고, 울산시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탐문활동을 벌였다. 탐문 결과 김 이등중사와 일치되는 자료를 발견했다.

그리고 정찬호(원사) 조사단 조사관은 국가보훈부의 협조를 받아 김 이등중사의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유가족에게 연락했다.

이제 유가족도 찾았기에 화랑무공훈장을 전도 수여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정 원사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김씨와의 통화에서 “아버지가 6·25전쟁에서 전사한 것 같지만 유해를 찾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은 것. 김 이등중사가 정상



김경용 이등중사의 아들 김동수 씨가 아버지를 그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적으로 전역했을 것이란 착각 때문이었다. 이상하게 여긴 정 원사는 원점으로 돌아가 기록을 다시 뜯어봤다.

김 이등중사의 행정관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그는 1953년 1월 23일 제27육군병원에서 사망했다. 하지만 군 기록에는 나이 많은 병사를 전역시키는 ‘연로제’에 따라 전역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정 원사는 관련 자료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 결국 그는 제적등본상에 있는 전사일자와 사망장소가 제27육군병원이라는 단서를 토대로 전사자 기록과 6·25전쟁에 참전한 동맹이인의 자료 등 군 병적·관련 자료들을 날이 조사했다.

그러던 중 ‘김경용’이란 이름이 적힌 ‘매화장보고서’를 발견했다. 매화장보고서는 전쟁 중 사망한 군인 관련 문서를 말한다. 보고서에는 그의 사망장소와 일자는 물론 행정관서와 일치한 주소지도 적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먼저 생일이 달랐다. 유가족으로 분류된 김 이등중사 부친의 이름이 ‘김용화’로 기록된 것도 문제. 제적등본에는 부친의 이름이 ‘김영하’였다. 전형적인 수기 문서의 오류였다.

다행히 매화장보고서에 명기된 ‘사망원인’에는 김 이등중사가 군병원에 입원한 날짜와 병원을 옮긴 기록 등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정 원사는 다시 입원 기록을 조사해 각 병원에 입원한 기록을 찾아냈다. 자료에는 김 이등중사의 군번과 입원일자가 기록돼 있었고, 이는 매화장보고서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다.

치열한 조사 끝에 조사단은 김 이등중사에게 주어진 자랑스러운 무공훈장을 유가족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

아버지 비석 앞에 선 김씨는 전화로 많은 대화를 나눴던 정 원사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건넸다.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다는 감동 때문인지 그는 복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했다.

“사실 저도 맹호부대 소속으로 나라를 위해 총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군에 큰 애정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행사를 하면서 더욱 군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70여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이 정도로 성대한 행사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계속 찾아올 수 있겠네요. 이렇게나마 아버지를 확인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글=박상원/사진=김병문 기자



2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22묘역 335번 비석 앞에 놓인 고(故) 김경용 이등중사의 훈장과 훈장증.

강한 국군 든든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

Kia Special Vehicle  
special.kia.com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합니다.

##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하는 차세대 전술차량 첨단 기술의 기아가 책임지겠습니다!

고성능 한국군 군용차량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의 국방선진화를 위한 힘찬 발걸음  
기아가 차세대 전술차량으로 펼쳐나갑니다.

소형전술차량

5톤 방탄킷차량

중형표준차량

제 230417-중-152663호

**EYE REUM** 아이리움 안과의원

**스마일  
수술**

**노안  
라식**

빠른회복 · 당일수술 · 안전지향

강남역

강남역 2번 출구 바로 연결

02-3420-2020

https://eyereum.com